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전망

이 성 희*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노조 설립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기업 내에서 복수노조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노사관계 지형이 변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는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교섭진행 방식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변화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I. 복수노조 설립 추세와 전망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변화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복수노조 설립 추세이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신설되는 복수노조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지난 2011년 10월 말까지의 진행 상황을 보면 복수노조가 허용된 지 4개월 만에 552개의 신규 노조가 설립되었다.¹⁾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수는 매년 150~200개 정도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우후죽순으로 노조 설립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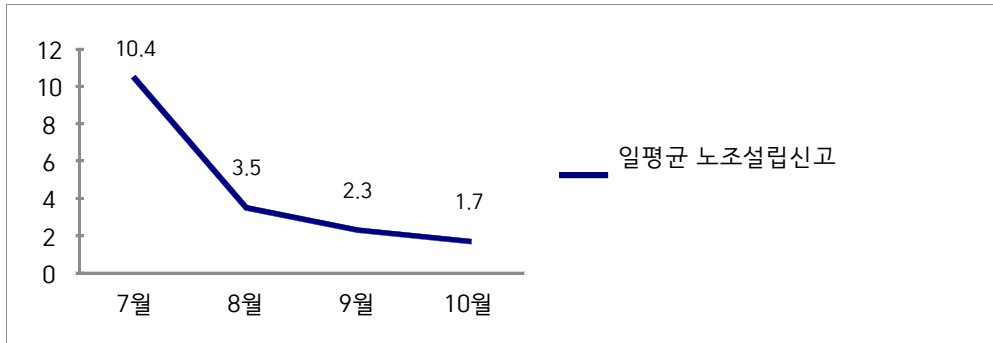
7월 1일 이후 첫 달에는 매일 10개의 노조가 설립될 정도로 노조설립이 붓물처럼 이어졌다. 이러한 복수노조 설립 추세는 점차 낮아져서 10월에는 하루에 1.7개의 노조가 설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 허용으로 인한 노조설립 붐이 점차 잦아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musedori@kli.re.kr).

1)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 통계는 2011년 7월 1일 이후 신설 노조를 기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신설 노조 중 일부는 미조직 사업체에서 설립된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그림 1] 2011년 7월 이후 일평균 노조설립 현황

(단위 : 개)



이렇게 복수노조 설립이 7월 1일 법시행 이후에 집중된 것은 법시행 전부터 복수노조 설립을 준비해온 세력들이 법시행과 함께 노조설립을 한 데다, 2011년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노조들이 복수노조 설립을 서두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복수노조 설립을 서두르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복수노조 설립 추세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2012년 상반기에 복수노조 설립은 일시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012년도 단체교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II. 상급단체 간 구도변화 양상

복수노조 시대에 또 하나의 관심사는 상급단체 간 구도 재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신규 노조는 대부분 양대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되었다. 10월 말까지 복수노조 설립 사업장 현황을 보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 183개,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142개, 미가맹 사업장이 53개, 상급단체 혼재 사업장이 69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버스·택시 등의 운수업종(258개)을 제외하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설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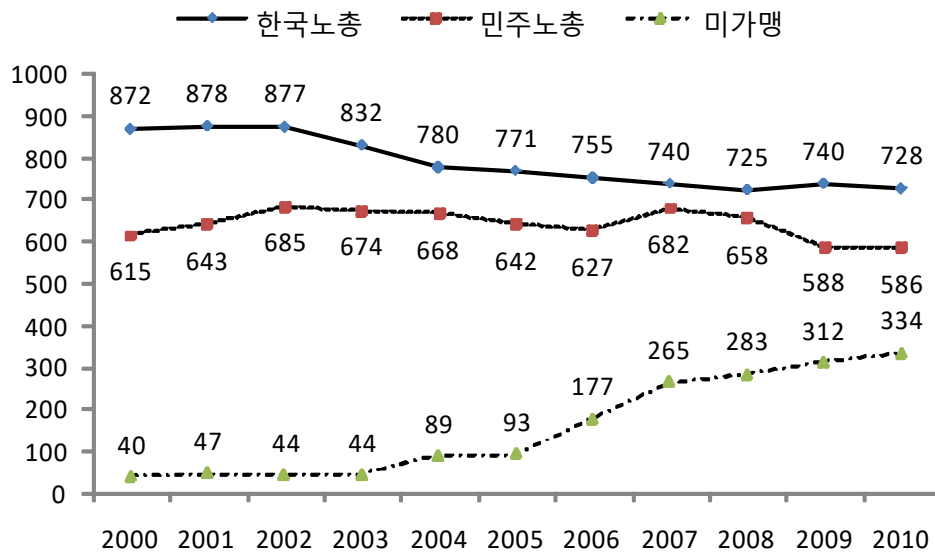
2) 버스·택시 업종의 경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된 복수노조가 125개이고, 민주노총 소속

이렇게 신설된 복수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4.2%(23개)이고, 한국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9.8%(54개)로 양대노총에 가입한 노조는 13.9%(77개)뿐이다. 나머지 86.1%(475개)는 상급단체를 선택하지 않아 미가맹 노조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급단체 소속 사업장별 복수노조 설립 현황과 신설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복수노조는 양대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되었는데, 신설된 복수노조는 다수가 미가맹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미가맹 노조들 중에 일부는 상급단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수는 미가맹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지난 2006년 이후 미가맹 노조의 증가 추세가 복수노조 시대에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2] 상급단체별 조합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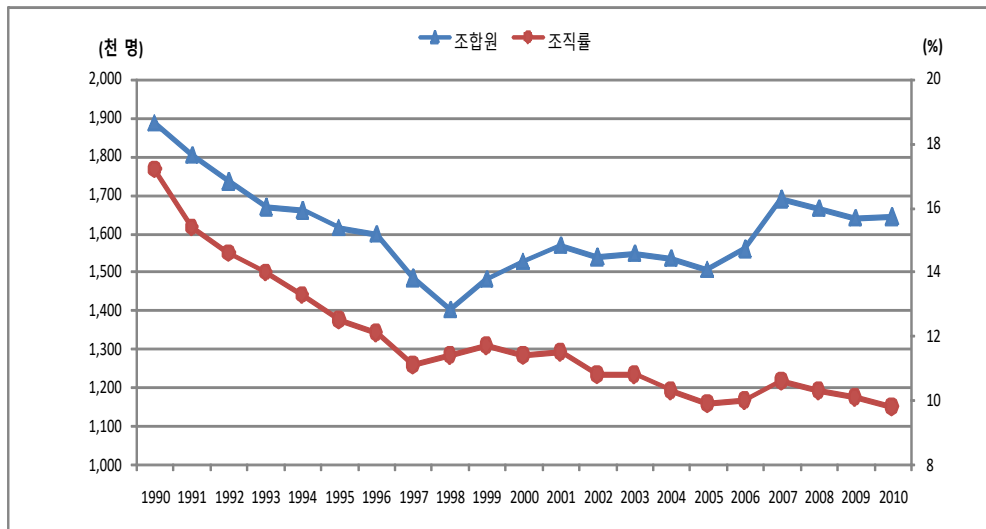
사업장에서 분화한 노조는 50개로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된 복수노조가 75개나 더 많다. 이렇게 버스·택시 업종을 제외하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설립된 복수노조가 34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분할형 복수노조’ 많아 노조 조직률은 약간 증가

복수노조의 설립 유형은 분할형 복수노조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0월 말까지 설립된 552개 노조들은 대부분 기존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기존 조합원의 일부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분할형 복수노조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할형 복수노조가 많다 보니 신설된 노조들은 대부분 조합원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0월 말까지 설립된 복수노조 현황을 보면, 신규 복수노조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10% 미만인 노조가 42.2%로 절반 가까운 복수노조들이 소규모 노조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복수노조 설립 현황을 보면 2011년 11월까지 97개의 복수노조가 설립되었는데, 이 중에서 조합원 수 10명 미만의 소규모 노조가 58개로 가장 많고, 조합원 수 10명 이상 50명 미만의 노조가 34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은 5개였다. 이렇게 조합원 수 10명 미만의 복수노조 설립이 많다는 것은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조 수가 10% 가까이 증가했지만 전체 조합원 수나 조직률 증가는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 조합원 수나 조직률의 증가가 있겠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림 3] 노동조합 조합원 수 및 조직률 추이



IV. 복수노조 시대의 노사관계 역학구도 변화

복수노조 시대는 기업 내 복수노조 설립과 복수노조들 간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인하여 노사관계 역학구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조 내부의 분열과 경쟁으로 ‘분열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조직화가 확대되는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수노조 설립 추이를 보면 현재까지는 두 가지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설립이 줄을 있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할형 복수노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분열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복수노조가 전체 노조운동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복수노조 시대의 기업 내 노사간 역학관계 변화 전망과 관련해서 2010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가 우세한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49.4%,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답변이 37.7%, 노조가 더 우세할 것이라는 답변은 13.0%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사간의 세력관계 변화의 측면에서 보면 복수노조 설립으로 사용자에게 유리한 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총에서 8월까지 소속 사업장에서 신설된 50개 복수노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용노조이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66%(33개소)로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조운동에서 노사협조적인 실리주의로 기우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복수노조가 노사간 역학구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복수노조 설립 추세와 단체교섭 과정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복수노조가 노사간 역학관계에 미칠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2012년도 단체교섭 진행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㉑**